

6-27-2010 주간 메시지

성서: 시편 110:1-7

본문: 마태복음 13:1-23

제목: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깨닫는 자의 축복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 외에는 천국의 신비를 알려주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나중에 별도로 제자들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셨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였기 때문이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함으로써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으셨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누구나 천국의 신비가 무엇인지 원하는 자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 천국의 신비들을 알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잠언에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잠 23:7)이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마음 속에 생각하는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말씀인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마 15:8)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을 때 주님께서 씨뿌리는 자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무도 그 뜻을 알 수 없도록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가운데 그 비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주님께서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묻는 율법사에게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마 22:36-38)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실을 깨닫은 사람만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 속의 생각이나 상상들이 주님으로 가득차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상상 속을 가득 채워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4:37-41).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이 무엇으로 가득차 있었는가? 모세는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계속해서 앗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창 6:5,6)

본문에서 주님께서 뿌리지는 씨에 대하여 “왕국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신다. 다시 말해서 왕국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눅 8:11) 안에 천국의 신비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막 4:11, 눅 8:10)가 들어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만이 일백 배, 육십 배, 삼십 배로 열매를 맺는 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고전 4:1)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일꾼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신비의 말씀들을 깨달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스라엘의 선생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비의 지식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성경의 줄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이 신비들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 마음 속에 지킴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들은 본문에 나타난 천국의 신비인 “씨뿌리는 자의 신비”를 포함해서 “곡식과 독보리(알곡과 쭉정이)의 신비”(마 13:24-30, “겨자씨 신비”(마 13:31-32), “누룩의 신비”(마 13:33-35), “밭에 숨겨진 보물의 신비”(마 13:44), “좋은 진주를 찾은 상인의 신비”(마 13:45,46), “고기잡는 그물의 신비”(마 13:47-52)를 비롯하여 “경건의 신비”(딤후 3:16), “그리스도의 신비”(골 1:26,27), “교회의 신비”(엡 5:32), “몸의 부활(휴거)의 신비”(고전 15:51-53), “이스라엘의 신비”(롬 11:25), “불법의 신비”(살후 2:7-12), “큰 바벨론의 신비”(계 17:1-7) 등이 있으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신비로운 지식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본문의 말씀대로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지키며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신비로운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일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잠언의 말씀대로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증거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5,6)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동시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되는 바 백배, 육십 배, 삼십 배로 열매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깨달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과 정욕에 물든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신비의 말씀을 듣고 마음 속에 지키며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모든 신비를 깨달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로 거두는 축복된 삶을 누리지 않겠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신비를 들어서 마음 속에 가득 채우며 묵상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이나 마귀를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말씀들이 자리잡게 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열매맺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6-27-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10:1-7

Main scripture: Matthew 13:1-23

Subject: **The blessing that understands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Jesus spoke to the crowd in a parable of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afterwards he explained about the real meaning of it to his disciples privately. It was because the Jews didn't believe in Jesus and rather they rejected him. Actually LORD God closed their eyes and ears for their hardness of heart as prophet Isaiah prophesizes of it.

But nowadays the Lord has given us grace so that we may understand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through the written words of God, if we want to know. But they that don't want to know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are still ignorant of it. As said in the Proverb as "For as he thinketh in his heart, so is he.", the destiny of man is decided as he thinks. Jesus testified of the Jews Isaiah's word saying, "This people draweth nigh unto me with their mouth, and honoureth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Matt. 15:8)

Yes! Seeing a great multitude gathering unto him, Jesus spoke to them in a parable of the sower. He intentionally said in a parable so that they might not understand it, and said to them, "Who hath ears to hear, let him hear." No one could understand his word. When his disciples asked him, "Why speakest thou unto them in parables?" Jesus answered them, "Because it is given unto you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but to them it is not given." On the other hand, Jesus blessed his disciples saying, "But blessed are your eyes, for they see: and your ears, for they hear. ¹⁷For verily I say unto you, That many prophets and righteous men have desired to see those things which ye see, and have not seen them; and to hear those things which ye hear, and have not heard them."

A lawyer asked Jesus which is the great commandment in the law? Jesus answered him,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and with all thy soul, and with all thy mind. ³⁸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Matt 22:36-38)

Only those that understand the love of God who loved the sinners to death may understand the word of the Lord. In other word, they that follow the Lord Jesus must fill their heard, mind and imagination with the Lord. In another word, the words of God should be full in their heart, mind and imagination. Jesus said, as in the days of Noah were,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Matt. 24:37-41). At the time of Noah, what was full in the heart, mind and imagination of men? Moses testified of this clearly: "⁵And Go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magina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⁶And it repented the LOR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it grieved him at his heart."(Gen. 6:5,6)

In the main passage, Jesus explained of the seed sown as the word of the kingdom. In other word, in the word of the kingdom that is the word of God (Luke 8:11),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are therein (Mark 4:11, Luke 8:10). Only the seed sown in the good ground could bear the fruit, and brings forth , some hundredfold, some sixty,

some thirty; this means that only they that love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trusting him could understand the mystery of God.

Apostle Paul said in his epistle to the Corinthians, "Let a man so account of us, as of the minister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1Cor. 4:1). In other word, the servants of the Lord ministering the saints should understand the words of the mystery in the words of God to teach them. The teachers of Israel such as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were away from God in their heart so that they couldn't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mystery in the words of God.

In fact, the main stream of the scriptures is a series of the mysteries of God; therefore no one understands these mysteries unless he or she dwells in the kingdom of God. In other word, no one could hear the words of God to understand and keep them in their heart to bring forth the fruits unless they are born again of the Spirit. The mysteries of God appear in the scriptures are including "The mystery of the sower" , "The mystery, the tares among the wheat"(Matt. 13:24-30), "The mystery of the grain of mustard seed" (Matt. 13:31-32), "The mystery of the leaven"(Matt 13:33-35), "Mystery of the hid treasure"(Matt. 13:44), "The mystery of the pearl" (Matt. 13:45,46), "The mystery of the drag net"(Matt. 13:47-52); and "The mystery of godliness"(1Tim. 3:16), "The mystery of Christ in us"(Col. 1:26,27), "The mystery of the church"(Eph. 5:32), "The mystery of translation (Rapture)"(1Cor. 15:51-53), "The mystery of Israel"(Rom. 11:25), "The mystery of iniquity"(2Thes. 2:7-12), "The mystery of Babylon the Great"(Rev. 17:1-7). All these mysterious knowledge in the kingdom of God are revealed unto them that love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As mentioned in the main passage, only those that hear the words of God, and understand, and keep, and meditate them could lead other people to the Lord so that they may also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As written in the Proverb, all things depend upon what man thinks in his heart.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truth: "⁵For they that are after the flesh do mind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ey that are after the Spirit the things of the Spirit. ⁶For to be carnally minded is death; but to be spiritually minded is life and peace. "(Romans 8:5,6)

In other word, they that receive the word of God, and keep it, and meditate could bring for the fruit of the Spirit through the word of God, and also bear the fruit of evangelism as well as make disciples to the Lord to have the life bringing for the fruit hundredfold, or sixtyfold, or thirtyfold. But the heart of no understanding word of God and failing to keep it, and the heart filled with the lust cannot bring forth the fruit.

What about blessed life we may have through hearing all the mysteries in the gospel of Christ, and keeping and meditating them to understand them all, and sowing the seed of the gospel of Christ in the heart of men to bring forth the fruit hundredfold, sixtyfold or thirtyfold? The faith is from hearing, and hearing is from the word of God, testified by Apostle Paul. There is no other way. The only way is to hear the mystery of the gospel in the word of God, and to fill them in the heart to meditate them. No one can complain either to God or to the Devil, for all things happening is because of the thoughts in the heart. What about cleansing our heart with the blood of Christ to make our heart as good ground, and letting the words of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in the words of God dwell in the heart to bring forth many fruits? Hallelujah!